

“첫 연기 부담 컸지만 꿈 이루게 돼 기뻐요”



연기 성공 데뷔한 나라
최근 종영한 '수상한 파트너'서
섹시하고 매력적인 여검사 변신
'헬로비너스' 앨범 활동도 최선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어요. 맛글도 못 볼 정도로요. 연기가 처음이니 작품에 누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유정이가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일지 끊임없이 주변 분들을 잡고 물어봤죠.”

‘개미지옥 로코’로 불리며 최근 종영한 SBS TV ‘수상한 파트너’에서 뽀뽀하지만 섹시하고 매력적인 여검사 차유정을 연기했던 가수 겸 배우 나라(본명 권아운·26·사진)를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났다.

나라는 첫 작품부터 좋은 팀과 만나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며 “사실 데뷔 때부터 연기에 뜻이 있어서 오디션을 많이 봤었는데 ‘수상한 파트너’를 통해 꿈을 이루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2012년 걸 그룹 헬로비너스로 데뷔한 나라의 사실 그동안 마음고생을 꽤 했다고 한다. 헬로비너스가 ‘핫’한 신인으로 주목 받았음에도 ‘뽀’ 터지지는 못했던 데다, 중간에 멤버 2명이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와중에 보는 오디션도 번번이 떨어졌으니 심적 고통이 컸을 법도 하다.

나라는 “그래서 이번에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이 있었다”며 “어떻게 하면 유정이라는 캐릭터가 사랑을 받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연기를 시작하니 캐릭터의 색을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반에 맛글을 못 보고 있을 때 동생이 ‘계속 육을 먹고는 있는데 언니 연기를 육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만 육한다’

고 전해주더라”며 “그 얘기를 들으니 ‘내가 그래도 조금씩은 해 나가는 중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실제 동갑이기도 한 최태준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태준이와는 동갑이고 친구처럼 편한 느낌이라 많이 의지했어요. 어떻게 하면 유정이라는 캐릭터가 예뻐 보일지 대화도 많이 했고요. 키스할 때도 제가 긴장을 많이 했는데 태준이가 장난을 걸어줘서 많이 풀렸죠.”

다음 달 입대하는 지창욱에 대해서는 “오빠가 입대하면 ‘수트너’ 팀이 다 같이 면회 가거나, 함께 못 가면 헬로비너스가 위문 공연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첫 연기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나라의 앞으로 헬로비너스 활동과 연기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비너스 앨범을 올해 한 번 더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비활용기가 많은 그룹이라고 하는데, 사실 개인기량을 넓힐 수 있는 시기로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멤버들에 대해서는 “정말 가족 같다”며 “중간에 일부 멤버가 교체됐을 때는 그만뒀어야 하나 생각도 했고,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버티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멤버들이 드라마 모니터링도 정말 열심히 해줘서 고마울 따름”이라고 애정을 표했다.

그러면서 “헬로비너스 활동을 하면서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더 큰 꿈이 생겼기 때문에 오래 함께 활동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군함도’ 스크린X로 생생하게 느껴라

CGV 광주 터미널 등 50곳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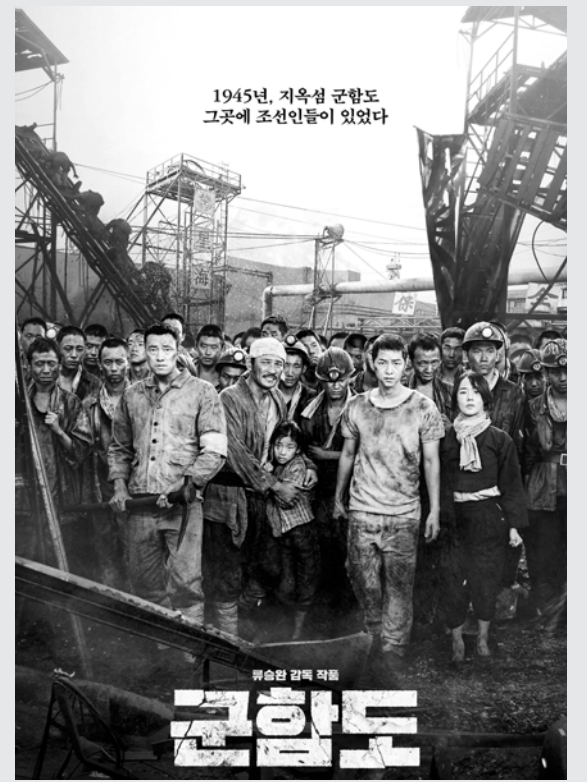
영화 ‘군함도’가 영화관 좌우 벽면까지 화면이 펼쳐지는 스크린X 버전으로 상영된다.

CJ CGV는 오는 26일 CGV용산아이파크몰, 여의도, 대전, 대구, 서면, 광주터미널 등 전국 50개 극장에서 ‘군함도’를 스크린X로 동시 개봉한다고 25일 밝혔다.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는 오감체험관인 4DX와 스크린X를 결합한 ‘4DX 위드 스크린X’를 통해서도 ‘군함도’를 만날 수 있다. ‘4DX 위드 스크린X’는 영화 장면에 따라 좌석이 흔들리는 등 다양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4DX와 3면이 스크린으로 펼쳐지는 스크린X가 결합한 신개념 특별관이다.

CGV는 “스크린X 버전은 실제 군함도 모습의 3분의 2를 그대로 재현한 세트장을 정면, 좌, 우 3대의 카메라로 촬영해 현장감을 극대화했다”며 “270도 3면에 펼쳐지는 탄광 속 모습은 고립감과 압박감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한다”고 설명했다.

‘군함도’는 일제 강점기 일본 히시마 섬(일명 군함도)에 강제 징용된 후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부산행’ 9월1일 日서 개봉 연상호 감독, 내달 현지 팬 미팅



작년 국내에서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부산행’(사진)이 오는 9월 1일 일본 극장에서 개봉한다.

25일 배급사 뉴에 따르면 해외 160여개국에 판매된 ‘부산행’은 작년 7월 22일 북미를 시작으로 유럽, 남미 등지에서 개봉한 데 이어 오는 9월 1일 일본 내 총 44개 도시에서 148개의 스크린 규모로 현지 관객과 만난다.

일본에서는 오감체험특별관인 4DX와 영화관 좌우 벽면까지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스크린X 버전으로도 상영된다.

‘부산행’을 연출한 연상호 감독은 8월 중순 일본에서 진행되는 현지 프로모션에 참석해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일본에서 개봉하는 ‘부산행’의 공식 제목은 ‘신감염(新感染):파이널 익스프레스’다. ‘신감염(新感染)’은 ‘특급열차’와 ‘새로운 감염’의 동음이의어다.

‘부산행’의 일본 배급을 담당하고 있는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약 150개 관에 이르는 상영 규모는 최근 일본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앞서 대만,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특히 아시아권에서 흥행 강세를 보였고 일본 현지의 시사 반응도 좋아, 일본 개봉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사람, 산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0 속보이든TV 인사이트 (재)	50 빛날 스페셜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7일의 왕비(재)	00 MBC 정오뉴스 20 MBC스포츠 2017 인천국제공항 i-league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충돌 55 데이트스페셜 55 닥터 365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걸어서 세계속으로			
2	4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10 텔레몬스터 25 푸르기 식사교실 55 프리파라 2	00 뉴스브리핑
3	10 정전 64주년 특선다큐 영웅의 귀환 에티오피아 강주부대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지원	25 별버머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00 MBC 뉴스M	자이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15 스토에이지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다시 만난 세계 (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문물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 7 35 여름특집 6부작 그럼에 살고 싶다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공감자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설렁하는 남자들	55 별버머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10' 55 숨터	00 7일의 왕비	00 죽어야 사는 남자	00 다시 만난 세계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의 향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남사친 여자친
12	30 KBS 특선다큐 실태보고 한국인의 고독사 2부작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0 MBC 뉴스 24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40 글로벌 애반 찾아 삼만리(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 및기행 청도 음식탐험)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스고기 수삼말이와 부추 콩가루냉국)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07:00 꼬마버스 타요(1)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40 지식채널 e
07:45 출동! 슈퍼윙스	12:45 EBS초대석(재)
08:00 딩동댕 유치원 1~2	13:4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과학이 곧 철학이다)
08:30 똑딱맨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8:45 Why - 최강대 호기심파지	15:00 그림을 그려요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얼마 까투리(재)	
09:30 물랑	
15:05 두키탐험대	20:50 세계테마기행 (신화의 땅, 코카서스에 반하다 - 아르메니아)
15:20 마사와 골	21:30 한국기행 (숨겨진 계곡 - 이국산 신선동)
15:35 모피와 친구들	21:50 EBS 다크프린스 (100세 쇼크-진짜 노인 되기)
15:45 레전드하이어 삼국전	22:45 극한직업 (사해안 꽃게 잡이)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23:35 장수의 비밀 (방사선 폭대기 앞 닦는 노부부)
16:30 Why - 최강대! 호기심파지(재)	24:25 지식채널e
16:45 딩동댕 유치원 1~2(재)	24:30 EBS 초대석
17:15 뽀롱뽀롱 뽀로로	
17:30 로보가 폴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1~4	
19:00 어벤저스:올트론 레볼루션	
19:30 EBS 뉴스	
19:55 메디컬 다크-7요일(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6일(음 6월 4일 甲寅)

子	48년생 확인한 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60년생 새로운 것이 항상 좋지 않은 법이다. 72년생 경험자의 지혜를 받으면 진척이 빠르다. 84년생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1, 21	午	42년생 대수롭지 않은 일이나 신경 쓸 필요도 없다. 54년생 과단성 있게는 집행하라. 66년생 똑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태도에 따른 차이가 크다. 78년생 직작적인 실행이 더 현명하다. 90년생 길한 사극이다. 행운의 숫자 : 43, 01
丑	49년생 영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61년생 단속적이어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73년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이어야만 타개할 수 있다. 85년생 공들여 왔던 것에 희망의 싹이 든다. 행운의 숫자 : 93, 10	未	43년생 충동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55년생 의심스럽다면 몇 번이고 확인하는 것만이 손실을 최소화한다. 67년생 양호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모양새다. 79년생 확실한 변별력이 절실하다. 91년생 사세난처로다. 행운의 숫자 : 78, 28
寅	50년생 절치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닥이 잡히리라. 62년생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지혜롭다. 74년생 뚜렷한 주관과 목적의식이 필요하다. 86년생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32, 66	申	44년생 불합리한 요소가 보인다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56년생 앞서간다면 역효과를 초래하라. 68년생 보편성에 기반을 두어야 어느 누구에게나 설득력을 갖게 되리라. 80년생 신뢰를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 67, 40
卯	51년생 유연해 생긴 것이 적절히 쓰여지게 되리라. 63년생 가량이에서 비파 소리가 날 정도로 분주해졌다. 75년생 각각 달라서 일정하지 않으리라. 87년생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거센 강도의 현상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2, 24	酉	45년생 길흉이 혼재하니 방심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57년생 주변인들로부터 인정받거나 호평을 들을 수도 있다. 69년생 선의로 받아들이고 무방하다. 81년생 서늘한 생각하고 한시바빠 본론으로 들어가야 옳다. 행운의 숫자 : 75, 13
辰	52년생 오늘날 날이 아니니 억지로 무리할 필요는 없다. 64년생 상대의 충고를 소중히 여기고 경청하는 것이 생산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76년생 모순이 보인다면 필히 조처해야 한다. 88년생 이루어지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12, 44	戌	46년생 성사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겠다. 58년생 감찰이 임박하기 전에 하수 법망을 방지하는 공사를 하여 뒤야 만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 이치이다. 70년생 재삼사지하라. 82년생 재원이 좋다. 행운의 숫자 : 91, 78
巳	53년생 평상시에 마음먹어 왔던 의지대로 행해도 무방하다. 65년생 오늘의 노력은 미래의 경쟁력을 낳을 것이다. 77년생 처세와 만능의 손기능이 두드러진다. 89년생 애감하여 왔던 바가 현실적으로 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63, 30	亥	47년생 잘 돌아다 볼 줄 알아야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59년생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보다는 경청하는 것이 유익하다. 71년생 먼저 택하였던 길을 가는 것도 그리지 틀리지는 않겠다. 83년생 정성을 들이자. 행운의 숫자 : 17, 6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 환영!” ☎010-9790-8237